

사회윤리학적 접근을 통한 기업의 윤리문제 해결과 지속가능 성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

A Exploratory Research for Solutions of Ethical Issues and Sustainability of Enterprises with Social Ethical Approach

김승범* · 신호상**

Kim, SeungBum · Shin, Ho-Sang

Abstract

A company is a core of free market capitalism. It needs to be sustainable to make capitalism better. In this reason, a company has to be ethical to be longer, because unethical company can not be survival. It means that we should understand what is the ethical company and how to be.

Because interdisciplinary exchanges give a hint to understand what and how from, so it was studied to find the academic theories which have a relationship with ethics or morality not only in the area of Business management, but also Psychology, Pedagogy, Ethics, Philosophy, and etc.. Making a visible structure by System Dynamics with results through interdisciplinary exchanges to understand the reason why unethical accidents are rising and damages are growing although companies pay “Ethics Pays” more and more to reduce immoral cases is the goal of this study.

On the theory of “Social Ethics”, 5 ways explain the reason why unethical behavior has not been demolished make a complex structure, which was founded from studying interdisciplinary exchanges such as “Ethics Pays”, “Moral Reasoning”, “Social Cost”, and “Fallacy of Compositions”. Finding the controllers and Factors of this model to control to be better, then the market could be more effective with lesser social cost.

Keywords: 윤리경영, 사회윤리학, 도덕추론, 윤리 지출, 시스템다이내믹스

(Business Ethics, Social Ethics, Moral Reasoning, Ethics Pays)

*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경영학전공 박사과정 (제1저자, AlexSB.Kim@gmail.com)

**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HSShin@assist.ac.kr)

I. 서론

경영학 연구는 그동안 공리주의적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전체의 효용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근본적으로 배분의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의 문제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견지한 채 별도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런 배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깊게 연구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윤리교육, 기부활동 등 기업에서 가능한 윤리적인 행동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기업도 많은 비용을 윤리적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비윤리적인 사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그 횡수나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윤리경영에 점점 많은 비용이 투자되나, 폐해가 커지는 모순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이 모순이 부각되는 출발점을 찾을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순의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지를 찾기 위해 윤리학, 교육학, 심리학, 경영학 등의 분야에서 논의된 기존 연구를 기초로 중층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좋은 기업’의 정의는 가장 전통적이며 윤리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Aristoteles의 목적론적 윤리학의 관점을 따랐다. 그에 의하면 ‘좋은 기업’이란 이익창출을 잘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익창출을 잘하는 기업을 지향하던 1960~90년대 기업의 일련의 행동들이 야기한 논쟁들은 단순히 이익만 많다는 것이 좋은 기업의 기준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이슈를 제공했다. Friedman 등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 theory)는 지나친 목적주의로 비판을 받았다. 지나친 이익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외부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 이후, 특히 CSR 활동 중 기부문화의 효과를 중시하는 이들에게는 반대로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이 착한 기업이고 착한 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경영학 영역에서 이윤 목적형 기업은 나쁜 기업이고, 착한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 좋고 나쁨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영학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는 아닌 엄연히 윤리학의 영역이다. 그런데 윤리학은 선하거나 옳은 행동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윤리이론이 실제 도덕에 부여하는 중요성의 근거를 제시한다. 경제학자가 이러한 윤리학을 이해하면, 정책적인 문제에 생산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도덕적 이슈를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자신의 확신을 더 견고히 해줄 수 있다 (Hausman & McPherson, 2010). 경영학이 윤리경영을 추구하는 의미도 견고성의 장점을 수용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의 ‘도덕추론(Moral Reasoning)’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도덕추론은 주어진 상황에서 윤리적인 판단을 위한 프로세스이다. 경영도 무한히 많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익우선 관점에 따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경영'간의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¹⁾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선택적 조건에서는 단순히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것만으로 윤리경영이 지니는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윤리와 경영이 모순적이지 않은 구조를 먼저 전제한 후 윤리경영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국내 경영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아래 시도들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윤리경영 연구와 다르게 윤리학 사조 중 '사회윤리학(Social Ethics)'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윤리학과 윤리교육학에서, 기업과 조직의 윤리를 설명하기 위한 윤리학은 다양한 윤리학 사조 중에서 사회윤리학이라고 명시한다(EBS, 2013, 2014, 2015). '사회윤리학'은 기존의 윤리학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이론과 실행을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로 구분한다. '개인윤리'는 개인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이론과 노력을 말하며, 대다수의 윤리학 이론과 성찰론이 포함된다. 이에 반해 '사회윤리'는 개인의 성찰과 반성만으로 사회제도 자체가 가지는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법과 제도의 제정 및 강화를 통해 '개인윤리'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사회윤리학적 관점'에서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이 두 영역이 동시에 상보적으로 실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EBS, 2013, 2014, 2015; 고범서, 1993, 1994, 1998).

둘째, 경영학 연구 최초로 제시된 Paine의 Ethics Pays(윤리 지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수용한다(Paine, 2000). 그동안 국내 윤리경영 관련 비용의 효과에 연구는 대부분 비용지출이 매출 등 성과에 유의미 여부를 판별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Paine은 윤리 지출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셋째, 심리학의 도덕추론 등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윤리경영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 윤리경영 연구는 CSR연구를 주로 다루었기에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았다. 심리학 분야에서 다루는 도덕 판단에 대한 프로세스 연구결과를 도입하여 기업조직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스트레스가 비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부각하였다. 또한 기업의 속성인 이윤극대화과 비용최적화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의 오류(The Fallacy of Composition)'를 사용했다(윤석철, 1991, 2001, 2011).

방법론적으로는 시스템 사고를 도입하였다. 기존에도 박헌준(2004, 2005), 임성범(2014)

1) 어떤 판단을 필요로 한 상황에서 선택지 A는 윤리적으로 옳지만 경영적으로는 그르고, 선택지 B는 윤리적으로는 그르나, 경영적으로는 옳은 선택이라 어느 하나를 고르더라도 윤리판단이나 경영판단 둘 중 하나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이 있다.

등이 윤리경영연구나 부패연구에서 시스템 사고를 통해 구조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시스템다이나믹스 방법론을 도입하여 경영 상 의사결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를 가시적으로 구현한다.

본문에서는 이상의 다양한 학문에서 각각 발전해 온 이론들에 대해 시스템다이나믹스방법론을 사용, 개별적인 CLD로 구성하여 그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고, 다시 이를 사회윤리학의 체계로 전체를 설명하는 통합 CLD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개별 CLD 6개는 R1: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루프, R2: 구성의 오류, R3: '윤리 지출'의 긍정적 측면, R4: 윤리 지출의 부정적 측면과 사회적 비용, R5: '도덕추론'의 영향, 그리고 B7: '사회윤리학'의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B6는 별도의 이론을 CLD로 구현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원인의 비윤리적 사건사고의 발생경로를 전체 CLD 안에서 추적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윤리학, 교육학, 심리학, 경영학을 융합하여 기업의 윤리경영 문제의 원인을 찾고 구조를 규명하고 기업이 지향해야 할 윤리경영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시스템다이나믹스를 통한 연구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에 비해 점점 많은 비용을 윤리경영 활동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업의 윤리문제와 도덕적 해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 횟수나 피해규모 면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윤리경영 연구의 장점들을 가급적 적극적으로 수용한 상태에서 윤리경영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시스템사고를 통해 구성하여 윤리경영의 근본적인 이슈를 찾아보고자 한다. 구조적으로는 윤리학과 윤리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윤리학의 체계를 기본 모델로 삼고 이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기업을 전제로 전체 모델을 구성했다.

인간의 의식세계와 가치는 시간의 변동과 주위의 영향관계의 역동성으로 인해 달라지는데 특히 기업과 내부·외부 이해관계자라는 두 주체간의 행동모형은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스스로 자기규제하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 피드백 루프의 시스템적 사고를 통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박헌준, 김상준, 2004).

시스템다이나믹스는 동태적인 변화를 시각화하여 분석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다(박헌준 외, 2005).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임성범(2014)이 수행한 시스템다이나믹스를 통한 체계적 부패에 대한 연구가 가능했던 이유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는 인과관계의 단선적 분석이 아닌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를 탐구했다(임성범, 2014). 본 연구에

서 지향하는 윤리경영에 대한 연구의 성격은 학제간 다양한 접근에 근거한 복잡하고 다중적인 원인규명이라 할 수 있다. 윤리경영 문제에 대하여 한두 가지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미시적인 접근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에 이미 연구되고 검증된 윤리 이슈 중 특히 윤리경영과 관련있는 부분들을 종합하여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원인 규명을 위한 모델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통한 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임성범(2014)은 체제적 부패의 특징을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의의를 첫째, 사회시스템의 공식적 접근, 둘째 시간종속적 연구를 통해 이론결합의 한계 극복의 측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임성범, 2014).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도 시스템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윤리경영의 다중 시스템적 접근, 그리고 이론결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다이내믹스 패러다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1.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루프 - R1

우선 정상적으로 잘 경영되고 있는 기업을 가정 했다. 이 기업의 마케팅, 인사, 전략, 재무, 회계, 생산, 영업, 물류 등 전통적인 경영요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다. 투자를 통해 경영성파가 개선되고, 성과에 대한 주주 배당이 이루어지고, 주주는 투자를 계속하는 즉, 지속성장하는 강화 루프이다. 이를 Causal Loop Diagram(인과지도, 이하 CLD)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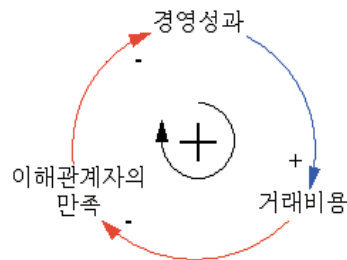


[그림 1]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가상 기업의 CLD (R1)

2. 구성의 오류(The Fallacy of Composition) - R2

‘구성의 오류’란 부분에서는 성립되는 원리가 전체적으로 확대 추론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이다.²⁾ 경영에 적용하면 내부·외부 이해관계자 개개인이 각자의 최적을 추구하면, 전

체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철(2001)에 의하면 전체의 최대이익을 위해 대리인의 희생을 야기하는 ‘구성의 오류’는 조직 속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갈등은 구성원과 주주 모두를 포함한 개인의 욕구에 근거하고 있다(윤석철, 2001). 결국 조직 구성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이 발생하게 되는데 불만은 현대사회의 공정한 자원배분의 문제로 귀결되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윤석철, 2011).



[그림 2] 구성의 오류의 CLD

강현수(2009)에 의하면 ‘구성의 오류’는 공정한 자원배분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선진화된 기업에서는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주요성과지표)로 구성원을 평가하고, 구성원은 KPI 달성여부에 따라 급여와 인센티브가 결정된다. 그러나, 구성원이 KPI를 초과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의 효율성 때문에 그 이익을 포기해야한다면, 이것은 공정한 자원의 분배라고 하기 어렵다. 이기적인 개인은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KPI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최적의 비용을 훼손하면서라도 자신의 비용을 감소시키거나(강현수, 2009), 혹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본인이 희생할 경우 불만이 쌓이게 된다. 둘 중 어떠한 경우라도 이해관계자에게는 부정적인 효과가, 그리고 기업의 경영성과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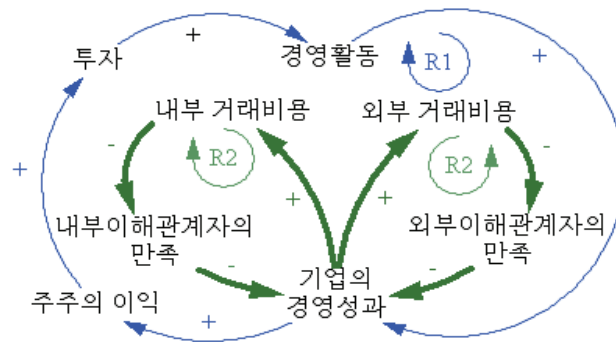
반대로 이해관계자의 희생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 즉 급여를 높여도 윤리적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윤리분위기 지각과 급여 만족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급여만족은 공정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조직이 올바르게 윤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Desphande, 1996).

윤석철(1991)은 이 ‘구성의 오류’를 경영학에 적용하며 ‘구성의 오류’는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하였다(윤석철, 1991). 희생의 당위성에 대하여 박헌준 등

2) 매일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구성오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962&cid=43659&categoryId=43659>

(2004)에 의하면 기업의 성과를 위해 경영자는 자신의 재량권 내에서 내부관계자의 희생을 요청하지 않을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단기 업적주의, 단기 성과지향의 압박으로 인해 경영자의 자율적 의지와 상반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자율성을 만들어 내게 된다. 결국 조직 전체의 입장에서는 거래비용³⁾으로 인식되어 제거해야 할 요소로 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통제 메커니즘을 조작할 필요가 있다(박헌준, 김상준, 2004).

이상의 ‘구성의 오류’를 박헌준 등(2004)이 위에서 언급한 ‘거래 비용’의 개념 요소로 정리하여 CLD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구성의 오류를 포함한 CLD (R1~R2)

3) 거래비용경제학에서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또는 거래가 내부화되는 이유에 대해 시장에서의 거래의 비용과 기업 내부에서의 거래의 비용을 비교할 때 기업 내부에서의 거래의 비용이 더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Williamson, 1975). 즉 한 기업이 원자재 등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해 구매를 할 경우 더 낮은 가격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은 시장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직접 생산하는 것 보다 낮은 가격일 경우 시장구매를 선택하고, 직접 생산이 더 낮은 가격일 경우 내부화 하는 것이다(신형덕, 홍세화, 2010). 또 Williamson(1975)은 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비용의 원천을 인간적 요소(human factors)와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factors)로 나누고, 인간적 요소에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factors)과 이기주의(opportunism), 그리고 환경적 요소에는 불확실성(uncertainty)과 고착된 거래상대(small numbers)에 기인하는 비용으로 들고 있다(Williamson, 1975). 이때 제한된 합리성과 이기주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 계약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로부터 이득을 얻어내려는 품성이 있음을 가정한다. 즉 거래 환경에 존재하는 필연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서의 거래는 기업에게 높은 위험부담을 안겨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장의 ‘거래비용’이다(신형덕, 홍세화, 2010).

3. 기업의 윤리경영 강화 활동 - Ethics Pay - R3

윤리경영 노력은 기업 내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동 가이드라인 수립과 윤리교육 강화, 감시체계 강화, 경영진의 윤리경영의지에 대한 대외 공표, 그리고 ‘우리의 신조’와 같은 윤리헌장 제정 등의 구체적인 행동들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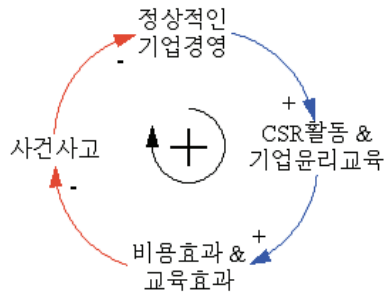
이때 주목해야 할 바는 이런 모든 활동에는 모두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용의 규모는 효용을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한다. 즉, CSR 비용이 높은 기업은 위험이 낮아 투자가치가 높다(Feldman et al., 1997). 또한 CSR 비용이 높은 기업은 정보비대칭이 완화된다(Dhaliwal et al., 2009). 투자가치가 높거나, 정보 비대칭성이 낮다는 것은 기업이 효율 높은 우수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윤리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CSR 비용 등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방해하는 예측가능한 위험을 제거하면, 기업이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CSR활동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와 더불어 어떤 결과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CSR활동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윤리경영의 실질적인 활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CSR 등의 비용을 통해 기업이미지 중 도덕적 이미지가 제고하는 것이고, 둘째는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및 교육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윤리수준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국내 윤리경영에 대한 연구는 이 두 가지 방식들이 매출이나 성과 개선에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혹은 없다는 증명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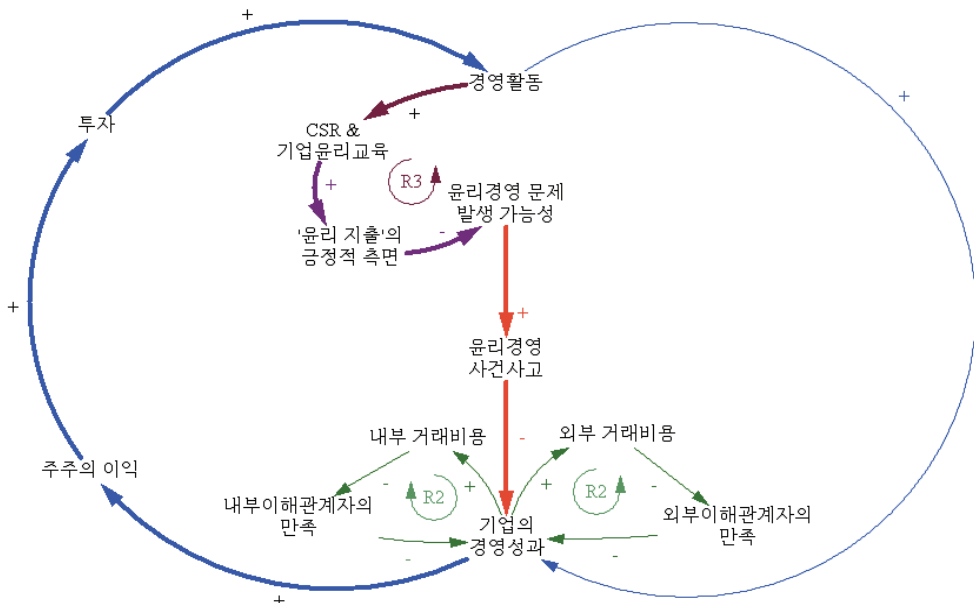
이에 반해, Paine(2000)에 의하면 기업의 윤리경영 활동을 위한 비용지출(Ethics Pays: 이하 윤리 지출)에는 긍정적인 측면(Positive aspect of ethics pay)⁴⁾과 부정적인 측면(Negative aspect of ethics pay)이 동시에 존재한다. 기업이 윤리 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결과적으로는 경영성과에 많은 장점들이 발생하므로 의도적으로 지출한다. 윤리 지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혁신, 생산성 증대, 이익 증가 등이 있다. 상식적인 윤리 기준에서 보면 신뢰의 기초, 좋은 평판 구축의 도움,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을 공급한다고 한다(Paine, 2000).

⁴⁾ Paine은 원문에서 Aspect와 Effect를 섞어서 사용한다. 본 논문 중 인용문은 원문대로 번역하고, 일반 기술은 적합한 표현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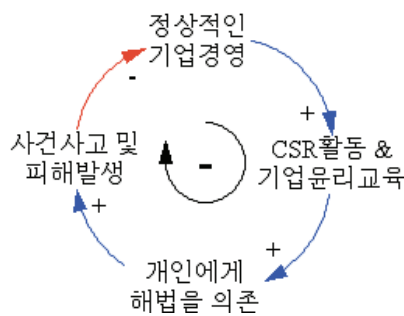
[그림 4] 윤리지출의 긍정적 효과의 모델 CLD

윤리 지출의 긍정적 효과는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 CSR 및 윤리시스템 강화와 교육강화를 연구해 온 내용과 유사하다. 다수의 연구결과가 축적된 부분과 동일하다 할 수 있는 만큼 윤리 지출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 없다고 보고 통합CLD에서는 ‘윤리 지출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표현하였다. 긍정적 효과는 ‘CSR 및 기업윤리교육’과 (+)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가지며, 긍정적 측면이 증가하면, 윤리경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는 윤리지출의 긍정적인 효과는 기업의 윤리수준을 높인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CLD는 [그림 5]와 같이 표현된다.



[그림 5] ‘윤리 지출’의 긍정적 측면 CLD (R1~R3)

Paine(2000)에 따르면, 윤리 지출에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비용 회피(Cost Avoidance) 성격의 활동들이 있다. 윤리 지출의 부정적인 측면은 이 위험관리와 비용 회피의 측면을 강조함에서 비롯된다(Paine, 2000). 기업이 윤리경영 상태나 위험관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고용인들에게 정직(Honesty), 신뢰(Reliability), 정당함(Fairness) 등을 강조해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이점이 윤리지출의 부정적인 측면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Paine, 2000).



[그림 6] '윤리 지출'의 부정적 효과의 모델 CLD

[그림 5]의 윤리 지출의 부정적 효과는 다음에 이어지는 R4-사회적 비용 중 '사적 사회적 비용'으로 설명한다. 왜냐하면, 이 "개인의 해법에 의존"이라는 지적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가 지불할 비용을 개인의 비용으로 전가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의 비용에 대해 R4-사회적 비용에서 '사적 사회적 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림 7] '사적 사회적 비용' 모델 CLD에서 설명하고 전체 CLD는 [그림 9] '윤리 지출의 부정적 측면과 사회적 비용의 CLD'에서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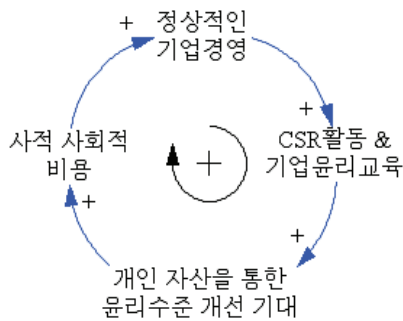
4. 사회적 비용 - R4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전체에 손실을 발생시키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Pigou(1920)가 언급한 후생경제학의 '외부경제(Externality)' (Pigou, 1920)와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외부경제 가운데 '부의 외부경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과 '사적 비용(Private Cost)'를 고려할 수 있다(맨큐, 2012). 사회적 비용은 "재화의 생산 시 발생하는 생산자를 포함한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비용"이다(Pigou, 1920).

후생경제학적 관점으로 윤리 지출의 부정적 측면을 바라보면 부정적 효과의 문제를 심화 해석할 수 있다. 윤리경영의 목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방해하는 요소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면 사회전체의 총효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후생경제학의 관점에서는 ‘부의 외부경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의 외부경제’에서의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

윤리 지출의 부정적 측면에 사용된 비용은 Paine(2000)이 언급한대로 기업이 윤리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결할 문제를, 고용인들에게 정직, 신뢰, 정당함 등을 강조해 구축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한 비용이다(Paine, 2000). 따라서 재무제표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시간과 노력과 같은 자산의 투자를 요청한 것이다. 심지어 정직, 신뢰, 정당함 같은 덕목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개인의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했다고 봐야한다. 이것은 기업 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할 비용이 개인들의 비용으로 환원됐다고 봐야한다. 기업입장에서는 비용절감에 해당한다.

후생경제학적으로 부의 외부경제가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할 수 있다. 윤리 지출의 부정적인 측면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윤리비용을 지출하려고 하였으나(사적 비용), 의도치 않게 발생한 추가비용, 즉 기업 내부 전반에 발생한 기업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비용(사회적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라 이하에선 윤리적 지출의 부정적인 측면을 ‘사적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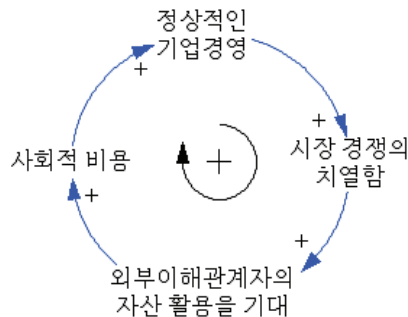
[그림 7] ‘사적 사회적 비용’ 모델 CLD

‘사적 사회적 비용’을 구분하여 중시하는 이유는 윤리 지출의 부정적 효과들이 결론적으로 내부이해관계자 개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윤리 지출의 부정적 영향은 개인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개인의 ‘도덕추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적 사회적 비용으로 해석하는 윤리 지출의 부정적인 영향과 중요성을 주목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실적이 좋으면 그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상품과 시장에 대하여 경쟁자가 진입하게 된다. 시장 내 경쟁은 일정기간 동안 상호간의 영업이익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나, 영업이익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이 되면,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 점점 커지는 손해를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담합, 과점, 비리 등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영업이익의 훼손을 대체할 것인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활동상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 종종 비용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 때 기업은 사회적 효용을 훼손시켜서라도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가를 낮추기 위해 Value Chain 상의 협력업체에게 각종 부당한 지원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비윤리적 행동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2013년 경부터 한국사회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위 ‘갑질’사건에서 이런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비용전가는 근본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비용 감소로 연계되므로 역시 기업의 경영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화 루프가 구성된다.



[그림 8] '사회적 비용' 모델 CLD

을의 비용지출에 근거한 갑의 경쟁력은 갑의 재무제표에 없는 을의 자원을 활용한 것이므로, 앞서 언급한 윤리 지출의 부정적 측면에 따른 사적 사회적 비용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갑에게는 비용절감이자 경영성과 개선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을의 비용은 사회적 비용의 유형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내부이해관계자에게는 윤리 지출의 부정적 측면에 근거한 사적 사회적 비용이 있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는 시장 내 경쟁의 치열함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라는 요인이 발생한다. 사적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전체 CLD에 적용하기 위해서 R2-‘구성의 오류’에 사용된 ‘외부이해관계자의 만족’이라는 요인과 연결하였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적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앞서 고찰해 본 대로 모두 기업의 경영성과와 (+)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전체 CLD에 결합하면 회사가 내부이해관

지구조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즉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바라보고 개념화하며, 판단하게 되는 '인지적 틀(mental set)'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문용린 외, 2008).

도덕발달에 관한 연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도덕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이다. 문제는 매번 이러한 딜레마에 처했을 때 판단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흔들림의 문제를 좀 더 단순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도덕추론'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설명한다. Velasquez(2012)에 따르면 도덕추론이란 명확한 윤리적 판단기준이 설정되었더라도 윤리적 판단기준에 따라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일정한 프로세스에 따라야 하는데, 외부변수에 따라 프로세스가 왜곡 될 수 있다는 것이다(Velasquez, 2012). 이러한 왜곡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다수의 개인은 이러한 외부요인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도덕추론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Kohlberg는 자신이 제시한 도덕성 발달 6단계 중 제 6단계에 다다른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15%라고 하였다. 나머지 인구는 상황에 따라 이상적인 도덕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외부변수에 따라 도덕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는 도덕추론 프로세스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도덕기준을 이해한다
- 2) 현상 및 주위 환경을 이해한다
- 3) 현상을 도덕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Toulmin et al.,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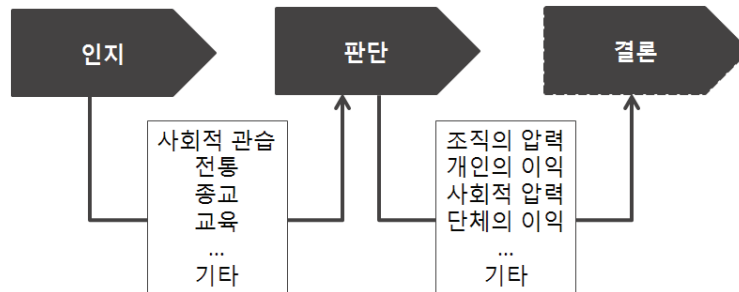
이런 도덕추론의 방법은 합리적인 프로세스이다(Velasquez, 2012).

일부 학자들은 도덕추론의 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도덕추론은 프로세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도덕기준에 의해 판단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Bandura(1999, 2000, 2002)는 윤리경영의 측면에서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에 대해 제언한다. 그가 제시한 일상에서 도덕적 판단을 방해하는 외부요인의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1) 완곡한 표현: 직원해고의 명분을 외주화, 구조조정, 최적화 등으로 표현
- 2) 행위의 합리화: 테러에 시민이 다쳐도 테러리스트는 '정의 수호'라 함
- 3) 체감고통 비교: 비품을 훔치며 '회사가 내게 대하는 것보다 덜하다고 함
- 4) 책임회피: 내가 잘못 만든 제품에 고객이 다쳐도 사장이 시킨 것이라 함

- 5) 책임확산: 제품에 고객이 다쳐도 나는 조직원으로 내 책임은 작다 함
 - 6) 부상의 무시/왜곡: 고객이 다쳐도 고객이 보상 때문에 매우 과장한다 함
 - 7) 인간성 말살: 직원을 해고하면, 사람 해고가 아니라 인적자원 축소라 함
 - 8) 비난의 전용: 관리자를 비난하면, 관리자가 직원을 해고하고 만족함
- (Bandura, 1999; Bandura et al., 2000; Bandura, 2002)

이러한 Bandura의 지적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은 결국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한 것이다. 개인의 순간적인 판단은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아 완벽하게 경영학적으로는 효율적이거나, 윤리학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Bandura, 1999; Bandura et al., 2000; Bandura, 2002). 이상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10] 도덕추론⁵⁾

때로는 경영학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윤리학적으로도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Arblaster, 2007). 시장 중심 경영학의 근간인 현대적 자유주의에서는 자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즉 자유를 개인이 스스로 결정한 고유한 목표와 방책들을 추구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한다(Berlin, 1984).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 때문에 작은 윤리적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도덕판단은 매우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윤리경영을 위한 시도들이 판단 외적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점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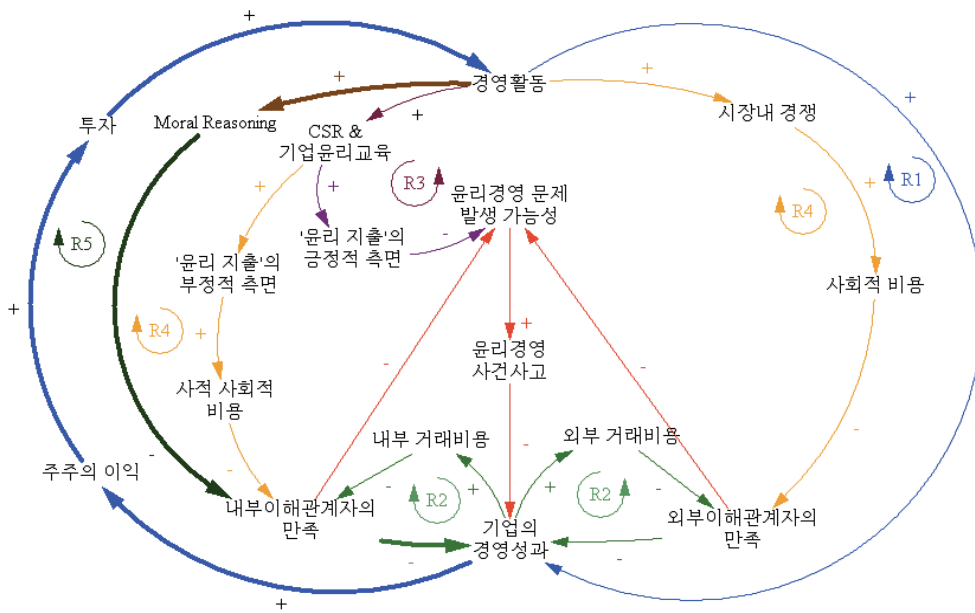
⁵⁾ Velasquez(2012)의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

‘도덕추론’을 경영학 영역에 적용하며 한 가지 민감한 점이 있다. 원시적인 ‘도덕추론’ 개념에서는 판단 결과 도덕적으로 더 개선되거나, 심지어 완전한 행동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적용되는 ‘도덕추론’은 기업 내 행동에서는 ‘도덕추론’ 과정상 도덕적으로 완전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배제한다. 즉 내부이해관계자는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결론만 도출한다고 본다.

경영에서 구성원들의 ‘도덕추론’도 원론적인 ‘도덕추론’과 같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행동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가정해보면, 기업 내부이해관계자는 모두 내부고발자(Whistleblower)가 되어야 하며 또한 바람직한 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기업에서는 기업에 문제가 있을 경우 외부에 진술하게 양심선언을 하라는 윤리경영 교육방침을 세우지는 않는다. 심지어 내부고발자가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의 윤리경영 상 ‘도덕추론’은 일반적인 ‘도덕추론’과 일치하지 않음을 방증한다.⁶⁾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경영학에서 ‘도덕추론’은 내부이해관계자에게 불법을 강요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의 경영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전제하는 강화루프의 CLD를 생각할 수 있다.

6)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기업의 조직원들의 가능한 선택은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양심선언 및 내부고발 등이 있고, 중립적인 방법으로는 양심선언 및 내부고발 시 보복이 두려워 폭로 대신 이직을 선택 할 수 있다.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 앞서 언급한 조직에 잔류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다. 양심선언 및 내부고발 시 사기업의 경우 현행법으로는 사실 상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받지 못해 해고 및 불이익이 속출하고 있다.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고발 할 경우에만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해준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KBS, 2015년 4월 11일 보도: 내부 고발 했더니 해고...고발자 보호는 커녕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54966). 이직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슈는 남아있다. 국내 그룹집단이나 대기업과 거래하는 평판회사 임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평판회사를 이용하는 전 직장에 평판조사를 하면 ‘조직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평판을 남기기 때문에 이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즉, 이직을 선택해도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다.



[그림 11] '도덕추론'의 영향 (R1~R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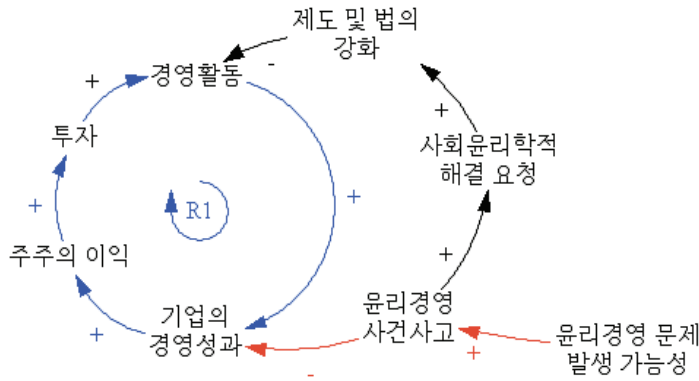
6. 사회윤리학(Social Ethics) - B7

‘사회윤리학’은 조직, 사회, 기업의 윤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적 반성과 성찰의 수행과 사회적 제도와 규제의 강화라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사회윤리학은 사회나 조직 등에 적용되는 윤리학이다(EBS, 2013, 2014, 2015). 예를 들어 기업이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때, 다양한 윤리학 사조 중 사회윤리학적으로 접근, 해결해야 한다(EBS, 2014)고 명시한다.

사회윤리학은 1960년대에 논의되기 시작했다(고범서, 1998). 한국에서는 1978년 『Individual Ethics and Social Ethics』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다. 그러나 국내 경영학 연구에서는 아직 이 사회윤리학에 대한 고찰이 전무하다. 윤리학과 윤리교육학에서는 기업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윤리학적 방법이라고 주장(EBS, 2013, 2014, 2015)하므로 윤리경영 연구에서 사회윤리학의 접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회윤리학에서는 비윤리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의 주체인 개인이 반성과 성찰을 통해 문제의 재발 방지를 추구하는 방법을 모두 '개인윤리'라 한다. 사회윤리학에서는 개인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만으로는 비윤리적 사건사고의 재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윤리적 방법과 동시에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방법을 '사회윤리'라고 한다(EBS, 2013, 2014,

2015; 고범서, 1993, 1994, 1998).



[그림 12] '사회윤리학' 모델 CLD

개인윤리를 윤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관점이 있다. 첫째는 Aristoteles의 『Nicomachean Ethics(니코마코스 윤리학)』과 J. S. Mill의 『Utilitarianism(공리주의)』로 대표되는 '목적론적 윤리학'이다. 둘째는 I. Kant의 『Critique of Practical Reason(실천이성비판)』으로 대표되는 '의무론적 윤리학'이다. 이와 같이 '개인윤리'는 사회윤리학의 등장 이전의 주요 윤리학 학설 대부분을 포함한다.

사회윤리적 방법론을 검토하기 위해 개인윤리의 어떤 측면이 문제가 되는지, 그 문제를 사회윤리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분법을 <표 5>와 같이 제시한다.

<표 5>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특징 비교

개인윤리의 특징 (3가지)	사회윤리의 특징 (6가지)
도덕적 진리나 목적의 실현과 달성 또는 도덕적 문제의 해결을 개인의 도덕성, 곧 개인의 의지의 자유와 결단에서만 다룸	예측할 수 있는 결과 특히 사회적 결과를 현실적으로 문제삼고 추구
	도덕적 행위나 문제의 사회적 원인을 문제삼고 그 극복을 추구
도덕적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만 봄	사회적 원인의 해결이나 제거를 사회적 정책이나 제도 또는 체제의 차원에서 추구
	정치적 방법을 사용하여 윤리적 문제를 다룸
개인의 도덕성의 사회적 영역에의 연장만에 의해서 도덕적인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추구	상황 및 컨텍스트와의 관련성에서 윤리적 문제를 다룸
	사회적 규범과의 관련성에서 윤리적 문제를 다룸

출처: 고범서(1993)7)

이러한 사회윤리와 개인윤리의 구분에 대하여 고범서(1998)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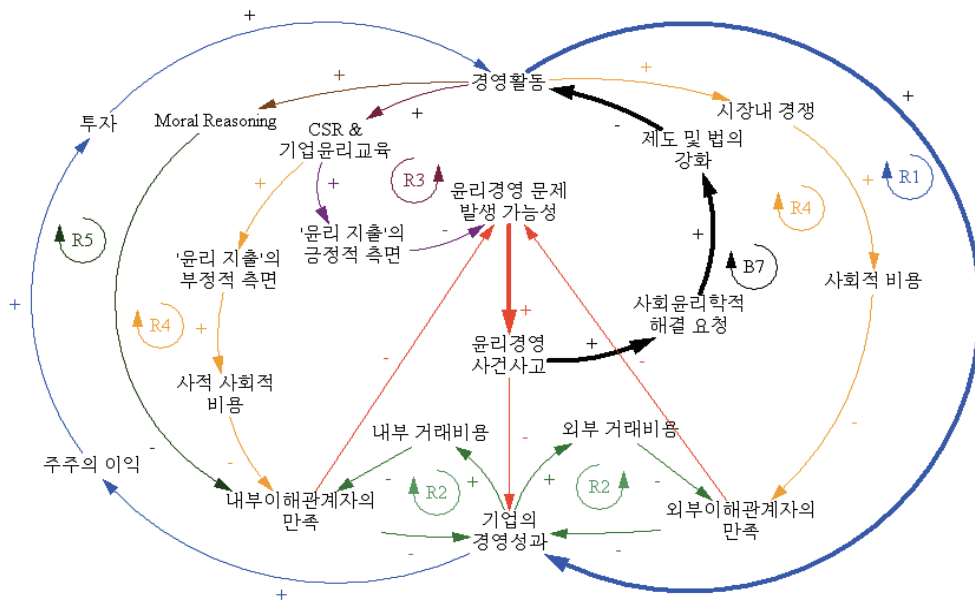
“치료비가 없어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강구하는 경우 개인윤리학적 접근 방법은 사랑의 정신을 가진 의사가 무료 치료를 베푸든가 재산 있는 사람이 자선심을 발휘해 치료비를 내주는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윤리적 접근 방법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또는 제도적 해결책을 고려하지 못한다... 부동산 투기 문제의 해결을 추구함에 있어서 투기의 원인이 투기자 개인에게만 있다고 본다. 그 결과 투기자 개인의 도덕적 자각에 호소하고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고 투기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으로써만 문제의 해결을 추구한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세계 곧 사회적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범서, 1998).

사회윤리학은 단순히 개인윤리적 방법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통적인 윤리학들의 실천력을 비판한다. 그러나, 사회윤리학은 개인윤리적 방법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는다. 사회윤리학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관점을 모두 중요하게 간주하고, 과거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규제, 제도의 강화도 개인윤리적 방법과 같이 사용해야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Niebuhr(1932)는 사회윤리학이 추구하는 제도나 정책의 도입을 ‘정치적 방법(political method)’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모두 도덕적인데, 세상이 비도덕적인 이유는 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제도는 제도를 바로잡음을 통해 개선 가능하고, 이는 도덕성찰의 방법이 아닌 정치적 방법이다(Niebuhr, 1932). 정치적 방법이란 강력한 제재 즉 벌금이나 세금 등을 의미한다(고범서, 1993).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측면과 사회의 측면 모두를 검토하고, 각각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윤리학 및 윤리교육학에서 사회윤리학의 의의는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불이익을 끼쳤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방법이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 어떠한 윤리적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가는 질문에 기업인의 반성이 아닌, 사회윤리학적 방법을 적용해야 맞다고 주장한다(EBS, 2014).

7) 고범서(1993) pp. 38-54. 연구자 재구성



[그림 13] '사회윤리학'의 영향 - R1~R5, B7

사회윤리학의 개인윤리적 방법은 대표적으로 기업윤리교육이나,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의미하는 'CSR & 기업윤리교육'을 비롯하여 이미 R2부터 R5의 루프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반면, 사회윤리학의 사회윤리적 방법은 사실상 징벌적 벌금, 영업정지, 사업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의미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폐업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제기한다. 사회윤리학적 방법론이 경영학에 유용한 이유는 윤리학적 관점에서 기업에 적용할 때 가장 적합한 윤리학이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사회적 비용의 처리에 대한 타당한 당위성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김정동, 2006)이다.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이슈로 인해 사회에 피해가 미쳐 큰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을 때, 특히 사고 당사자의 모든 재산은 물론 해당 기업의 모든 가치분 자산을 처분해도 그 사회적 비용을 감당 할 수 없을 때, 끊임없는 유사사건의 재발은 결국 그 사회와 국가를 경제적 파탄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법과 제도를 통해 사전에 재발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제는 경영학적인 입장에서 즉, 지속가능한 기업의 실현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점은 매우 큰 위험이다. 특히 징벌적 처벌이 가해지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일단 사회적 이슈가 된 기업이 법 제도의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기업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CLD으로 표현하면 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수많은 노력에 대해 이 사회윤리학은 기업의 존망을 위협하는 감쇄루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망에 유

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을 통합CLD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이해관계자들에게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행위가 반복되거나 강하게 영향을 미치면 부정적인 도덕 추론이 결과적으로 'B6-윤리경영 상 문제 발생'을 야기시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행하는 무리한 요구나 처우 등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B6-윤리경영 상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통합CLD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원인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각각 발생할 수도 있지만, 기업이 'B6-윤리경영 상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통합CLD에서 고찰한 이슈를 야기시킨다면, 결국 기업은 'B6-윤리경영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의 만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훼손당한다. 기업의 경영성과 최대화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희생(구성의 오류),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적 비용의 사회적 비용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부도덕의 강요(도덕추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행동은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족을 야기한다. 그리고 이 불만족이 'B6-윤리경영 사건사고'를 야기한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제도의 개선 및 법적 처벌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은 일정 부분 해소되지만, 기업 으로서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경영환경 악화로 수용해야 한다. 심지어 징벌적 처벌이 가해지는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해질 수 있다.

2) 통합CLD의 시사점

이 CLD는 동시에 이해관계자 이론의 지적을 수용하여 기업의 행동의 범위는 공리주의에서 제시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최대의 효용'을 지향해야 한다.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업은 윤리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특성이나 한두 가지 인과관계가 아닌, 동태적이며 순환적인 피드백 구조 안에서 계속 변동성이 유지되는 상태에 주목하고 이런 시스템다이나믹스 구조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동태적인 피드백 구조 안에서 윤리경영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윤리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윤리경영적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사회윤리학적 방법론이 작동해서 법과 제도의 강화 규제 적용, 심하게는 징벌적 벌금 등 결국은 기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 경영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주지하고 경영활동을 한다면, 사회윤리학적 방법론은 기업이 윤리적인 상태를 억지로라도 유지하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동태

적 피드백 모델이 사회윤리학적 방법론이 윤리경영에 가장 적합한 윤리학이라는 관련 학계의 주장을 잘 반영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은 최대효율을 통한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다. 따라서 그 존재의 목적 자체가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충돌을 태생적으로 내포한다. 그러므로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현상화되는 기업간 이해충돌과 갈등은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사회전체에 큰 부담을 주면 안되므로 기업은 적당한 수준까지만 이해충돌과 갈등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적당한 수준에 대해서는 보다 향후에 자세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 결과 요약 및 논문의 의의

2013년 미국에서 발생한 유통기업 Target의 결제정보 유출사건을 살펴보면, 비록 외부에서 접근한 해커들의 소행이었으나, 내부의 협조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금전적 문제, 복수, 권한에 대한 문제, 협박, 부적절한 내부 권력예의 복종, 정치적 신념 등이 동기가 되어 기업을 적대시 하게 된다. 내부 이해관계자가 적이 되면, 외부의 해커보다 더 무서운 적이 된다(Upton et al., 2014). 따라서 내부 이해관계자의 불만은 그들을 가장 무서운 적으로 만들 수 있는 큰 원인이므로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여러 가지 심리학적, 교육학적 증명을 적용해 고찰해보면 윤리경영에서 진행되는 사내의 윤리경영 교육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점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인류의 10~15%에 해당하는 도덕적으로 우수한 인간이 기업의 구성원이라면 비윤리적인 사고가 감소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니만큼, 우수한 윤리적 자질의 구성원을 채용할 가능성 문제가 있다. 둘째로, 윤리교육의 효과가 도덕추론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윤리경영 교육 효과 자체가 낮을 가능성도 있다.

기업이 지속가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요소들 중에 본 CLD 모델을 통해 윤리경영의 주체인 내부·외부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종류를 이해하고,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여 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을 통제한다면, 그 기업은 윤리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윤리경영의 위협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기업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의 출발은 “기업은 계속 CSR비용과 기업내부의 윤리경영 교육 및 시스템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노력을 지속하는데, 왜 윤리경영 사건사고는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왜 점점 더 커지는 딜레마가 발생하는가?”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CLD 모델은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다양한 위험 중 윤리경영적 요소는 윤리의 본질과 법적 존재인 기업의 특성상 기업의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의 모든 윤리적인 사건 사고는 모두 기업의 내부·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발생시킨다. 실제로 윤리경영 사고 중 투자자인 주주가 사고의 주체인 경우는 거의 없다.⁸⁾

물론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경영학에서 지향하던 목적론적 관점으로서의 윤리적 기업이라는 논지가 훼손될 수 있다.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하는 기업이 윤리적 기업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익에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윤리적 기업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기 때문이다. 이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좋은 사람일 수 있는 것과 같다.

통합CLD에서 윤리경영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과 그 조합의 수는 매우 다양하다. 이는 최소한 1가지의 윤리경영에 대한 강화루프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5가지 경로의 윤리경영에 대한 감쇄루프가 내부·외부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윤리경영 사건 발생가능성이라는 요소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연구가 이 5가지 경로 중 어떤 경로로 감쇄루프가 작동할지,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지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5가지 감쇄루프가 1개의 강화루프 간의 조화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회 전체의 효익을 증가시키거나 최소한 위해하지 않는 것이 윤리경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다양한 학문간 연구성과를 종합한 연구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윤리학,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의 연구성과를 경영학적 연구목적에 활용한 연구이다. 둘째, 그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사회윤리학, 윤리 지출의 부정적 측면, 도덕추론 등을 고려한 연구라는 점도 들 수 있다.

8) 한국은 특히 오너 경영인이 일으키는 사고에 대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오너 경영인에 대하여 본 CLD 모델에서는 경영인으로 구분하였다. 오너 경영인은 주주와 경영자를 겸한 개념이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주들은 단순투자자의 형태를 가지므로 경영대리인을 선택하여 간접 경영을 한다. 따라서 주주들이 기업의 윤리경영 문제에 있어서 사건사고의 주범인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한국의 오너 경영인이 일으키는 사고는 내부적으로는 제왕적 통치에 따른 도덕추론 측면의 문제이거나, 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문제가 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너 경영인의 경우 경영자로써 내부이해관계자의 일부로 보았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은 윤리라는 주제에 대하여 윤리학,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된 내용을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이다. 기본적으로 이들 학문들간의 학제간 연구는 그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경영학은 윤리경영을 지향하면서, 윤리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이들 학문의 연구성과를 소극적으로 반영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각각의 정당성의 근거가 조금씩 달라 학문간 연구성과를 직접 접목하기가 쉽지 않았다. 능력에 한계가 있는 한 명의 연구자가 이 다양한 학문을 이해하고 그 성과를 집대성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비슷한 연구관심과 주제를 가진 학자들이 모여 함께 연구하며 머리를 맞대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향후 연구의 방향은 본 연구의 결과인 통합CLD를 통해 기존의 윤리경영 사건 사고들을 설명하는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카드3사 정보유출사건, 세월호 사건, 땅콩회항 사건 등 지난 2014년에만 해도 역사적으로 크게 기록될 윤리적인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에 따라 안전불감증과 국민정서법이라는 단어도 유행하고 국민안전처라는 정부 기관도 수립되고 각종 관련 법안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매년 점차 그 수가 많아지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윤리경영 사고들을 본 CLD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여 그 예방과 피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국가 전반에 걸친 사회적 비용감소로 사회전반에 걸쳐 돌아올 혜택은 무한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런 결과를 위해 앞서 언급한대로 학제간 연구를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CLD를 이론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완성된 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현수. (2009). 「카플란과 노튼의 BSC의 모순과 한계, 그리고 새로운 대안」. 디지전사이언스.
고범서. (1993). 「사회윤리학」. 나남.
고범서. (1994). 「행복의 윤리학」. 소화.
고범서. (1998). 「포스트모던시대의 사회윤리」. 소화.
김정동. (2006). “사회윤리의 경제학적 분석에 관한 소론(小論)”, 「기업윤리연구」, 제12권, pp.21-48.
문용린 · 문미희. (1993). “한국 청소년의 도덕판단력 발달 연구개관”, 「청소년학연구」, 제1권 제1호, pp.43-57.
문용린 · 김민강 · 이지혜 · 원현주. (2008). “한국인의 도덕판단력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교육심리연구」, 제22권 제1호, pp.281-299.
매일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구성의오류 (2015년6월10일 확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962&cid=43659&categoryId=43659>
맨큐(저), 김경환 · 김종석(역). (2012).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박헌준 · 김상준. (2004).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의도하지 않은 통제의 패러독스”, 「한국 시스템다이나믹스 연구」, 제5권 제1호, pp.5-33.
박헌준 · 김상준 · 김나정. (2005). “기업 부패과정에 대한 시스템다이나믹스 접근”, 「한국 시스템다이나믹스 연구」, 제6권 제1호, pp.33-70.
신형덕 · 홍세화. (2010). “대리인 이론과 거래비용경제학에 기반을 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모델”, 「경영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pp.149-169.
윤석철. (1991). 「프린시피아 매네지멘타」. 경문사.
윤석철. (2001). 「경영학의 진리체계」. 경문사.
윤석철. (2011). 「삶의 정도」. 위스덤하우스.
임성범. (2014). “시스템다이나믹스를 활용한 체제적 부패 연구”, 「한국 시스템다이나믹스 연구」, 제15권 제4호, pp.29-60.
최경수 외. (2013). 「EBS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한국교육방송공사.
최경수 외. (2014). 「EBS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한국교육방송공사.
최경수 외. (2015). 「EBS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한국교육방송공사.
하우스만, 다니엘 · 맥퍼슨, 마이클(저), 주동률(역). (2010). 「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정책」. 나남.

- Arblaster, A.(저), 조기제(역). (2007).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나남.
- Bandura, A. (1999). “Moral Disengagement in the Perpetration of Inhumanit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3, no.3, pp.193-209.
- Bandura, A., Caprara, G. V., and Zsolnai, L. (2000). “Corporate Transgressions Through Moral Disengagement”, *Journal of Human Value*, vol.6, pp.57-63.
- Bandura, A. (2002). “Selective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31, no.2, pp.101-119.
- Berlin, I. (1984). “Two Concepts of Liberty”. in M. Sandel(ed), *Liberalism and Its Critics*. Oxford: Basil Blackwell Publishers, pp.15-36.
- Deshpande, S. P. (1996). “The impact of ethical climate types on facets of job satisfac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15, no.6, pp.655-660.
- Dhaliwal, D. S., Li, O. Z., Tsang, A., and Yang, Y. G. (2009). “Voluntary Non-Financial Disclosure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The Cas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ing”, Working Paper, University of Arizona.
- Feldman, S. J., Soyka, P. A., and Ameer, P.G. (1997). “Does improving a firm’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sult in a higher stock price?”, *Journal of Investing*, vol.6, 87-97.
- KBS. (2015). “내부 고발 했더니 해고... 고발자 보호는커녕”, 4월11일자.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54966
- Niebuhr, R. (1932).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Paine, L. S. (2000). “Does Ethics Pay?”,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10, no.1, pp.319-330.
- Pigou, A. C. (2009). *The Economics of Welfare*.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Third Printing.
- Toulmin, S., Rieke, R., and Janik, A. (1979). *An Introduction to Reasoning*. New York: Macmillan Inc.
- Velasquez, M. G. (2012). *Business Ethics*, 7E, New Jersey: Prentice Hall.
- Upton, D. M., and Creese, S. (2014). “The Danger from Within”, *Harvard Business Review*, Sep. pp.95-101.
- Williamson, O. E. (1975). *Markets and Hierarchies*. New York: Free Press.